

다산포럼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지금 대학가에서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도입이 최대의 화두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돌파할 수 없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격차 및 학문 생태계 붕괴 등의 문제들이 쇄도해 오는 지금, 고등교육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대학들은 후진적 고등교육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확보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해 달라고 호소하는 중이다.

2020년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액 15조 원은 국내 총생산(GDP) 규모 대비 0.78%로,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평균 1.1%에 한참 미달한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 1287달러로, OECD 평균인 1만 7559달러에 비해 턱없이 적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오른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재정 수준은 여전히 세계 30위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를 거쳐오면서 개선되지 못한 문제를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역대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도 이 문제의 해결에는 별반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가 세계 30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 예산을 민간에게 의지하고, 교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과 공공성

육비 부담을 가장 약한 경제 단위의 개인과 가정에 떠넘겨 왔던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지표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예산은 정치의 모든 것을 말해 준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딱 세계 30위만큼만 있었던 것이다. 유치원·초중등 학교에서 국·공·사립 구별 없이 공교육 기관에 동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대학도 공교육 기관이라면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별 없이 동등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지만, 해방 후 가난한 나라가 사립대학에 고등교육의 절반 이상을 떠맡겼던 관성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에 특정 산업 분야 학과를 대규모로 신설하고 싶어 한다. 정부 관심사를 실현할 예산이 필요할 터인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전용하여 예산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당분간 고등교육 예산이 증가하는 착시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국가 교육 예산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애꿎을 뽕이 잇돌 괴러 하니 당장 이익 당사자 간의 갈등만 조장되는 꼴이다. 특정 산업 분야의 교수진을 그렇게 급조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우며, 특정 분야에 특화된 대학 졸업자들이 과도하게 배출될 경우 발생할 문제는 또 어찌할 것인지 알 수 없다. 결국 고등교육의 후진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새로운 문제만 누적될 것이다.

'고등교육 재정교부금'은 고등교육의 후진성을 개선하는 좀 더 근본적 접근법이다. 17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회기 만료로 폐기되긴 하였지만 꾸준한 '고등

교육 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된 바 있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등교육의 국가 책무에 대해 정치인들이 아주 무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20년을 끌어오면서도 이 법을 통과시킬 만큼의 분위기를 만들지는 못했다. 국민 여론은 여전히 고등교육 투자에 냉담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정치의 모든 걸 말해주지만, 그 정치는 유권자의 여론에 좌우된다.

교육은 공동체의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다. 고등교육은 고등교육을 받은 시민을 양성하는 일이어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학은 교육의 성취를 사유화하는 엘리트만을 양산해 왔다.

당초 국가의 재정 지원이 미흡한 조건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엘리트들은 집안의 희생을 딛고 일어서거나 자기 스스로 학비를 벌어야 했으므로 고등교육의 성취를 공동체에 돌려줘야 한다는 어떠한 부채감도 발생할 요인이 없었다. 각자의 서러운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 그들은 졸업 후 사회 곳곳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 왔다. 성취를 사유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대학이 이제 어려워졌다고 새삼 불쌍하게 여길 국민은 없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벌써 고등교육의 약한 고리들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대학이 먼저 반성해야 한다. 반성의 열쇠 맡은 고등교육 공공성이어야 한다. 공동체를 위하는 고등교육이 이제 맨땅에서 싹을 틔운다는 희망이 있어야 국민들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런 뒤에야 정부는 세계 30위의 교육 지원 예산이 부끄러운 일일 줄 깨닫게 될 것이다.

社說

사육비 급등에 살처분까지...농가 지원 강화를

고물가·고유가에 허덕이는 전남 지역 농가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 겨울 들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7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장흥군에서는 해당 농가를 비롯해 반경 1km 이내 다섯 개 농가에서 오리 7만 400마리를 살처분했다. 나머지 23개 농가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장흥에서는 28개 농가에서 70만 8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특히 오리의 경우 전남 225개 농가에서 국내 전체의 50~60%에 해당하는 385만 마리를 키우고 있어 위기감이 크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달치면서 가금류 사육 농가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올 들어 지속된 고물가로 인해 유통비와 약품비, 전기 요금 등이 크게 올라 사육 비용이 두 배 이상 상승했는데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비용을 회수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실제 축사 난방용 등유 가격은 1

당 1398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0% 상승했다. 사료값과 인건비도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상승했다고 농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장흥의 한 농가는 "2017년에 AI 확산으로 살처분하고 1년 동안 오리를 키우지 못해 밭이 1억 원이 넘는 처지에서 또다시 살처분이 진행돼 부채가 크게 늘게 됐다"면서 "특히 올해 오리 사육 자금, 가족 입식 자금, 경영 안정 자금 등 재정 지원도 다각화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장흥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우려도 있는 만큼 피해 농가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장기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느는 코로나 사망자, 백신 접종률 높여야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없이 7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탓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어제 3만 31명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이날까지 1487명의 시도민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여름 유행이 끝난 뒤 한때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사망자 수가 최근 하루 40~60명대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2~18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사망자는 354명으로 3주 전(147명)에 비해 2.4배로 늘었다. 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중증 환자 역시 지난 4일 이후 300명을 웃돌다 어제는 465명으로 두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철 재유행 규모가

지난여름과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하루 사망자가 150~2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방역의 유일한 무기인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2차 백신을 활용한 18세 이상 국민의 동접률이 7.2%에 불과하다. 가뜰스나 올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제부터 한 달 동안 개량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 없이 당일 병원에 가면 언제든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감염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는 개량 백신을 맞아야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것은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 방역 당국은 백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42년 11월 20일생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재임 중에 80세 생일을 맞았다. 이로써 바이든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이 됐다. 그를 제외하면 70세에 취임해 78세에 임기를 마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령이었다. 이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노린다는 점이다. 그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86세까지 재임하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된다.

이를 두고 나이에 무감한 편인 미국 사회에서도 80대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과 박지원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와 불안전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거동 등이 거론되며 다시 대선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반면에 우호적 여론도 상당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왔고 민주당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예상 밖 선전을 한 것도 그의 저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그의 도전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동갑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1942년 6월 5일생)의

정치권 복귀가 이슈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에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인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열혈함으로 무장한 박 전 원장이 민주당에 복귀한다면 대어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전 원장은 각종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뼈아프게 지적하는 등 목소리 높인 내용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그의 2024년 총선 출마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그는 노화한 회에서도 80대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치인답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차기 총선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출마할 지역구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가 차기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역대 최고령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다.

미국 프로야구 전설적 선수이자 감독인 요키 베라가 남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명언처럼 동서양의 노(老)정객들이 나이의 한계를 넘어 정치사에 어떠한 전설을 써 내려갈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청춘 특특



김우진 광주대 사진영상드론학과 4년

드디어 시작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2 카타르월드컵이 개막했다. 광주대학교 선배인 조규성 선수가 대표 선배로 더욱 기대되는 월드컵이다. 조규성 선배가 골을 넣고 환호하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거리 응원전을 비롯해 어른들이 식당과 술집에서 열린 응원전을 펼쳤던 기억이 난다. 대학생이 되면 나도 친구·가족들과 함께 멋지게 응원하겠다 다짐도 잊지 못한다.

월드컵은 모든 사람을 즐겁고, 흥분하게 하는 스포츠 이벤트다. 모든 기압이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다양한 행사를 주최한다. 이번 월드컵에도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단인 '붉은 악마' 주최로 거리 응원을 추천한다는 뉴스를 봤다.

하지만 지금은 4년 전과 다르다. 서울시와 대한축구

월드컵 멋지게 응원하고 싶지만

협회는 이태원 참사 분위기를 고려해 거리 응원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만약 거리 응원전이 진행될 경우,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돼 안전 관리에 만반을 기하겠다 뜻을 밝혔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대두된 안전 문제로 책임지지 않은 어른들의 선제적 예측인가?

국민의 의견도 분분하다. 한 커뮤니티에는 "거리 응원 취소가 왜 말인가?"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데 과연 맞나?" 등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이태원 참사로 따른 국민 정서를 고려해 계획된 거리 응원을 취소하고 있다. 이 또한 선제적 예측에 따른 대책인가? 현 시점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애도 때문인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현재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시의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서울시·정부·경찰 등 관계 당국의 예측 실패를 지목했다. 사고의 원인은 헬러윈 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은 지금까지도 없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의 친

구, 동생, 누나, 형들을 하늘로 떠나보냈다.

현재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며 문제 파악에 나섰다. 지금까지 '봐주기' '논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본격적으로 책임자 수사에 나선 모양새다.

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모든 구성원은 이태원 참사로 충격에 빠져 있다. 계획했던 축제 행사를 취소했고, 애도 기간에는 주요 공간을 마련해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그 당시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면, 정말 압울하다는 생각만 든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대학생으로서 무엇이 먼저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어른들의 생각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으로 애도를 하는 것인지, 편 가르고 싸우는 건지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어떠한 것이 먼저인지보다 애도와 추모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아마도 한목소리로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응원해야 하는 월드컵 기간에도 어른들은 싸우고 있을 것 같다. 멋진 어른들과 함께 조규성 선배를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을 멋지게 응원하고 싶었던, 나의 다짐은 이번엔 잊으려고 한다.

무등산의 주인은 자연이다

내를 발아래에 둘 수도 있다. 원효사 주차장에서 오탁재를 지나 규봉암, 장불재, 토기등을 거쳐 원점 회귀하는 코스는 낮낮이가 무난한 하이킹 코스로 좋다.

가을에는 백마능선의 우아한 역새풍의 출렁임에 몸을 맡겨도, 제2수원지에서 칠성계곡을 타고 중머리재로 향해도 좋다. 등산객이 봄바는 주말에 조용히 산행을 하고 싶다면 원효사에서 출발해서 오탁재를 지나 누에봉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날의 산행 컨디션에 따라 혹은 동행하는 사람의 체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하는 재미가 있다.

특히 적막한 겨울 숲에서 혼자 듣는 고목은 쪼는 딱따구리 소리는 특별하다. 난데없는 그 소리는 흡사 일본 공포 영화 '림'의 효과음과 같다. 이렇듯 무등산은 점점 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귀국 신고식을 서석대에서 치러야 직성이 풀렸다. 사람에게 지질 때에도, 진행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무등산을 찾았다. 10년 이상 키운 반려견들을 화장하고 보내준 곳도 약사암이 내려다보이는 세인봉이었다.

마침내 100회를 마친 몇 개월이 지난 10월, 광주시와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이 상시 개방에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논의되는 무등산 개방 건. 케이블카 설치 및 노르레일 등 여러 방법들이 언론에 등장했다. 늘 그렇듯 자연을 대하는 '정부' 방식은 '인간 대 자연'이었다. 자연은 개방의 대상일 뿐이어서 수익을 창출해야만 그 값을 한다는

자본주의의 논리로 여전히 무장하고 있었다. 좀 더 인간적인 명분을 내세울 때는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여성은 산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몸을 지녔다면 서들에게 정상에 발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공색한 변명을 했다.

6년 동안 무등산을 오르면서 성별과 국적 상관없이 여러 연령대를 만났다. 60~70대도 심심찮게 봤다. 건강해서 산을 타는 것인지 산을 타서 건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들 모두 나름대로 빛이 났다. 산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성별이나 신체 조건과 달리 '관심'이었다. 나 또한 40년을 보내는 동안 '산'은 그냥 '산'이었을 뿐이다. 내가 맘을 흐려서 산행을 시작한 뒤로 그 산이 무등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산의 말랑한 속살들이 내게 애잔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애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두 발로 걸으면서 맘을 흐리면서 피곤한 다리를 중간중간 쉬면서 정수리에 뜨거운 태양을 이고 가면서 그곳에서 거처하는 모든 것들과 교감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쉽게 기계 장치들 이용해서 정상에서 전망만 하는 행위로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그것은 자연과 일대일로 끈질기게 대면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무등산의 최고의 개방은 자연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무등산의 주인은 자연일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이 인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